

‘번역기’ 컨 엑스포...통역 부실 ‘상담 마비’



메가어스 엑스포
‘번역기’ 의존한 수출상담

지난 8월 열린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 행사장에 참가 기업들의 부스가 마련돼 있다. 행사에서는 전문 통역 인력 부족으로 기업들의 수출 상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제공=엑스포 참여기업>

현장 현지 단순 어학 인력 배치

산하기관장 모시기 ‘혈안’

지원기관 ‘불만 대다수 통역’ 시인

특정 대행사 수년째 행사 독점 의혹

(3) 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현지 남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논란, 특정 업체 독식 등의 각종 문제점을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주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스타트업의 동남아 판로를 열어주겠다고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가 전문 통역조차 갖추지 못해 수출 상담 마비 사태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이 스마트폰 번역기 앱에 의존하는 촌극 속에서도, 행사를 주관한 특정 대행사와 참가 기관들이 유착해 파행을 묵인해 왔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도내 유관기관들은 기업당 600만~700

만 원 상당의 국·도비를 지원하며 전문 통역 매칭을 약속했지만 기계, IT, 바이오 등 기술 용어가 필수적인 제조업 부스에 전문성이 전무한 현지 단순 어학 인력이 배치됐다.

또한 참가 기업들은 사전 자료를 보냈음에도 첫날 아침에야 통역원을 만나 제품을 설명해야 했고, 영어 소통도 불가능해 상담은 결절었다.

박람회장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 A씨는 “바이어가 부스를 찾았지만 통역 인력이 전문 용어는커녕 기본적인 제품 개념조차 전달하지 못했다”며 “결국 답답한 마음에 스마트폰 번역기 앱을 켜고 대화를 이어가는 촌극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파행은 지원 기관 측에서도 인정했다.

전북벤처산업진흥원 관계자는 “160개 기업이 참가하다 보니 통역을 모두 전문가로 매칭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기계 부품 등 전문 분야는 비전문가 통역으로 설명이 어려웠고, 기업 불만의 대다수가 통역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원 기관들이 매년 반복되는

통역 부실을 알면서도 특정 대행사에 수년째 행사를 맡겨왔다는 점이다.

메가어스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관사와 기관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전주 본사와 베트남 법인을 둔 해당 업체가 주요 공공사업을 독점해 온 데다,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방식이 지자체 감사를 피하기 쉽다는 행정적 허점도 지적된다.

참가 기업 대표 B씨는 “행사를 직접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기관이나 주관사 모두 지자체의 간간한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비용 처리가 수월하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대행사에 매년 수억 원대의 혈세를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주관사가 참가 기업의 상담 환경보다 ‘기관장 모시기’에만 집중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어 B씨는 “비가 쏟아지는 날 기업인들은 비를 맞으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관장은 연예인 같은 고급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더라”며 “주관사가 기관장 접대와 개막식

의전에만 공을 들이니, 정작 수백만 원 사비를 들여 참가한 기업들의 부스 통역이나 상담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관사 대표는 “특히나 몰아주기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관사 대표는 “공공기관 운영비를 지원받은 행사가 아니라 사기업이 리스크를 안고 연 박람회에 기관들이 자율 참가한 구조”라며 “전국 41개 기관이 참여했고 도내 기관은 3곳뿐인데 유독 전북에서만 특히 프레임 씌운다”고 반발했다.

이어 “2년 전 도의회 의혹 제기 당시에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며 “경쟁사들의 시기 속에서 전북 기업이라는 이유로 기업 죽이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내 유관기관들이 참여 기업 모집이 저조하자 자체 인력을 무리하게 동원해 부스를 채우는 등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 현장 애로 해소 ‘팔 걷어’



7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양선화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특화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열어

성일하이텍 등 10개사 애로 청취

정책자금·폐수처리 등 현안 점검

법·규제개선·인력양성 방안 논의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2026년 하반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의 처리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 애로사항을 청취해 관계기관과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하이텍, LS-L&F배터리솔루션, 퓨처그래프, 에코앤드립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 10개사가 참석했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을 비롯해 김윤희 군산시 신성장산업과장, 이광현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사업단장 등 관계기관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 구축 현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이 그동안 건의한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폐수처리 기반시설 구축, 법·규제 개선, 인력양성 등 주요 현안의 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또 기업들은 투자와 경영 과정에서 겪고 있는 현장 애로와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했다.

도와 관계기관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지원 가능 여부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처 및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은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 건의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투자과 인력 채용 등 현장의 애로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며 “기업들의 다양한 제언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시·군과 적극 협의해 새만금을 이차전지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제 21 회 세계인의 입맛, 순창에만!

순창장류축제

Sunchang Jangryu Festival

황금 메주를 찾아라

축제기간 중 순창에서 20,000원 이상
사용 영수증 인증시 행운권 지급

행운권 추첨 (일 20명)
경품 지급 (황금 1돈 / 매일 1명)
10.15(목) ~ 18(일)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순창군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청정원
순창

전북도, 지역먹거리 정책 협력체계 강화

완주 경천애인마을서 통합워크숍
도·시군·기관 등 100여명 참여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방안 논의
학교·공공급식 연계 강화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8일까지 1박 2일간 완주군 경천애인마을에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먹거리정책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을 비롯해 도와 시·군 먹거리정책 및 학교급식 담당자,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영양교사, 도·시군 먹거리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먹거리 정책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현황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7일에는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지역먹거리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이 진행되며, 진안군이 인구감소지역 먹거리계획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학교·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로컬푸드·먹거리복지 연계 강화를 주제로 분과토론을 진행한다. 행정과 교육기관, 먹거리 관계자들은 각 분야의 현장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별 여건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날인 8일에는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먹거리정책 연석회의가 열린다. '2027년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에 대비

한 시·군별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별 먹거리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지역먹거리 정책은 행정과 교육기관,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경험과 사례가 각 지역의 먹거리정책 추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박희승,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촉구

서남권 전력 자급률 210% 강조
"입지 경쟁 아닌 국가전략 접근"



박희승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정관 장관에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용수·전력 여건상 필연적 선택이었음을 수치로 확인하고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재 건설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의 팹10기(국가산단 삼성 6기, 일반산단 SK하이닉스 4기)가 모두 가동되면 하루 107.2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한강권역 용수 계약률은 94%에 이르러 여유분이 8만 톤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완공 이후 수도권에 반도체 팹을 더 지을 물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라면서 "신규 수원 확보도 막혀 있다. 저수량 약 1억 톤 규모의 양구 수임전 댐 건설은 지역 반대로 무산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력(공급)도 마찬가지"라면서 "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10~16GW로 원전 10~16기 발전량에 맞먹지만 기존 계통에서 끌어오지 못해, 국가산단에 LNG 발전소 3GW, 일반산단에 열병합발전소 1GW를 따로 지어야 하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남권은 올해 1~5월 전국 출력제어량의 51.3%가 발생할 만큼 전기가 남아돌아 보낼 곳

이 없어 버려지고 있고, 전력 자급률은 210%, 재생에너지 비중은 44.1%에 달한다"며 "버려지는 출력제어 전기를 그 지역에서 생산해 그 지역에서 쓰는 '자산지소' 방식으로 활용하면 송전망 비용 부담과 주민 갈등이 줄고, 출력제어 전기를 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별 총생산과 산업단지 분포를 볼 때 국가 균형발전과 전략적 분산 차원에서도 서남권 입지가 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최강 대만의 TSMC도 신주에서 출발해 타이중·타이난·가오슝 등 섬 전역에 팹을 분산 배치하며 성장해 왔다"며 "한 곳에 몰아짓는 것이 아니라 용수·전력·부지가 있는 곳으로 넓혀 가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용수와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누가 팔을 비틀어 선택한 것이냐"며 야권의 주장을 일축하고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지금, 입지를 경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여가 함께 초격차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도, 해외 태권도 유망주 20명 스포츠 홍보단 위촉

'올림픽솔리더리티육성캠프' 성료
다카르 청소년올림픽서 전북 홍보
SNS 활용 전북 관광·문화 소개

전북도가 전북에서 훈련한 해외 태권도 유망주 20명을 '전북 글로벌 유스 스포츠 외교 홍보단'으로 위촉하고, 태권도를 매개로 한 국제 스포츠 교류 확대에 나선다.

도는 세계태권도연맹(WT), 태권도진흥재단(TPF)과 공동 추진한 '2026 WT 올림픽 솔리더리티(Olympic Solidarity) 육성캠프'를 마무리하고, 수료식과 함께 해외 참가 선수 20명에 대한 홍보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홍보단 위촉은 캠프를 통해 맺은 해외 청소년 선수들과의 교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스포츠 외교 네트워크로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향후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태권도 유망주들을 통해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관광 자원을 해외에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전북 글로벌 유스 스포츠 외교 홍보단'은 이번 캠프에 참가한 U-17 이하 해외 선수 가운데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 기간은 7일부터 1년간이다.

홍보단은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리는 2026 다카르 하계 청소년올림픽 기간 자국 선수단과 태권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북을 알리는 활동을 펼친다. 개인 및 각국 태권도협회 SNS 등을 활용해 전북의 스포츠 인프라와 문화·관광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자국에서도 온·오프라인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홍보단 활동을 통해 참가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와의 국제 교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2026 WT 올림픽 솔리더리티 육성캠프'에는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13



<사진=전북도>

개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태권도 유망주와 지도자, 국제 관계자 등 47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무주와 전주 일원에서 전문훈련과 문화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전북에서 함께 훈련하고 교류하며 인연을 맺었다"며 "홍보단으로 위촉된 선수들이 다카르 청소년올림픽과 자국에서 전북을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윤덕 "MICE 산업 예산 삭감 이해할 수 없다"

문체부 국감서 예산 확대 촉구
지역분산수도권 편중 해소 강조
전주등 자생력 확보 방안 마련 주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이스[MICE] 산업 관련 현황을 따져 묻고 전폭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최신 자료인 한국관광공사가 2024년 발간한 'MICE 산업통계 연구조사'에서



김윤덕 의원

한국은 국제회의 연합 집계 세계 2위, 국제 컨벤션 협회 집계 12위로 대한민국은 세계 마이스 산업의 주요 국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이스(MICE) 산업은 회의(기업회의), 국제회의(컨벤션), 인센티브 여행, 전시 산업을 통칭하는 말로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은 날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마이스 개최 건수는 2024년 기준 179,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참가자 수 역시 전년 대비 53.9% 증가한 29,230,000여 명이며 이중 외국인 참가자는 1,998,000여 명으로 30.7%가 상승하는 최대 관광산업 중 하나라는 것.

그러나 김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2027년 문체부 정부 예산안에는 마이스(MICE)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마이스 산업 성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도 국제회의 개최 지원 관련 예산

이 많이 부족하여 말레이시아 기업 단체 1,000명과 인도 기업 단체 4,000명 행사개최가 호텔 가격을 매우 저렴하게 제시한 중국에 넘어가기도 했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문체부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마이스 관광을 청주, 광주, 경주 등 지역으로 분산해서 개최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특히 전주, 경북 등 새로 마이스 복합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지역에는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유치 역량 강화, 국제회의 유치 기반 조성 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역시 삭감됐다. 이 밖에도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방한 단체 지원, 국제회의 개최 지원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한국 MICE 산업의 규모와 성장세를 보면 정부 부처가 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이스 산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마이스 산업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돈을 벌어드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면서 "특히 국제회의와 전시회, 기업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지역축제와 각종 이벤트 산업이 마이스 산업에 포함되는 산업들인데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인바운드 관광의 한 축인 마이스 산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목기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두 잣대’ 영향평가 방식 개선 촉구

신장식 의원 “동일한 기준으로 농업 전·후방 피해 분석해야”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제조업의 경제적 이익은 전·후방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포함해 6조원대로 추산하면서 농업 피해는 연평균 7,100억원의 생산 감소를 중심으로 산정해 피해 규모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장식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CPTPP 경제적 영향분석에 농업 전·후방 연관 산업과 지역별·농가규모별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영향평가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시 경제성장 효과와 산업별 영향 잠정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은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6조3천억~6조7천억원의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산업별 영향 산정 범위다. 제조업은 해당 산업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유발 효과까지 분석한 반면 농업은 농업 생산액 감소를 중심으로 분석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사과가 향후 개방된다고 가정할 경우 사과 생산액 감소에 그치지 않고 비료·농기계·종자·농약 등 후방산업과 식품·포장·가공·물류·유통 등 전방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조업의 이익을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계산했다면 농업 피해 역시 같은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별 영향평가가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농업 피해는 농가소득 감소와 농촌 일자리, 지역 상권과 지방세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 분석에는 지역별 피해 전망이 포함되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 CPTPP 가입 과정에서 유사한 논란이 제기됐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별도의 농업 영향분석을 통해 주요 품목의 생산량뿐 아니라 가격과 고용 변화까지 분석했다.

양고기 생산량은 10.5~11%, 소고기와 밀은 3~6% 감소하고 양고기 부문 고용도 11% 줄어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전망치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품목별 피해 규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123개 품목을 토대로 농업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품목별 피해 추정치는 내놓지 않았다.

특히 자분력과 가격 교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농에 대한 별도 영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개방도가 96% 수준인 만큼 사과·배·복숭아 등 현재 검역상 수입이 금지된 민감 품목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신 의원은 “제조업 이익을 전·후방 산업의 파급효과까지 포함해 계산한다면 농업 피해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지역별·농가규모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목별 피해 예측치를 공개한 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기자

“스마트농업 활용 기후대응 기술 보급 확대”

농진청, ICT 원격제어 등 현장 적용 성과 점검

극한 폭염과 집중호우, 가뭄, 우박 등 이상기상이 농업 생산을 위협하면서 농촌진흥청은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설하우스 차열망부터 사과 다축형 평면수형, ICT 기반 원격제어까지 현장 적용 기술을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이승돈 청장이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의 피망과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이상기상·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7일 밝혔다.

피망 재배 농가는 지난해 ‘이상 고온 대응 시설재배 안전 생산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시설하우스 17동, 0.6ha에 차열망과 환기팬 등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시설 내부 온도를 낮춰 고온기 생육 저하를 줄이고 재배기간을 연장해 농가 수익을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는 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사과 농가에는 ‘다축형 평면 수형 재배 기술’이 도입됐다. 나무의 가지를 평면 형태로 배치해 전정과 적과, 수확 등의 작업 접근성을 높이고 농작업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제어 시스템을 접목해 관수와 미세 살수, 다목적망 등을 관리하면서 저온과 가뭄·고온, 우박 등 돌발적인 기상재해에 대응하고 있다.

농진청은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실제 농가에서 검증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보급을 점진적으로 확

대할 방침이다.

다만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설치비와 농가 자부담, 기술 도입 전후 생산량과 소득 변화 등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효과가 입증되더라도 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 들어간다면 현장 확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승돈 청장은 “급변하는 기상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 기술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신속한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의 기후 탄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청년 첫 국민연금 사전신청 ‘후끈’… 부모 신청이 62%

내년 2009년생부터 첫 보험료 1개월 국비 지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이 시작 3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청년 본인보다 부모의 대리신청이 훨씬 많아 자녀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부모 세대의 관심이 제도 초기 신청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이후 6일 오전 8시까지 모두 1,729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1,706건으로 98.7%를 차지

했다.

신청 주체별로는 청년 본인이 656건으로 37.9%인 반면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신청한 경우는 1,073건으로 62.1%에 달했다. 부모 신청이 청년 본인 신청의 약 1.6배에 이르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543건, 서울 294건으로 두 지역에서만 837건이 접수돼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신청 294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7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다만 신청자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계층별 참여 격차로 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기가 늦어지는 청년의 조기 가입을 유

도하기 위해 내년 1월 처음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18세부터 26세 사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과 타공적연금 가입자, 외국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신청 당시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 분이다. 공단은 현재 2027년 1월 기준 4만1,000원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부는 내년도 하한액 전담지 등을 반영해 약 4만2,000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18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4만원대 보험료 지원보다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가

입 이력을 조기에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첫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향후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미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청년에게는 보험료를 다시 지원하는 대신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다만 1개월의 첫 보험료 지원이 실제 장기적인 국민연금 가입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제도 시행 이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또 소득·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의 형평성, 부모 대리신청 비중이 높은 원인 등도 향후 정책 효과와 판단할 주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최준호 기자

농지임대·연금 수요 ↑… 농어촌公, 디지털 업무체계 개선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간소화·업무 자동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관련 문의·신청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 간소화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업무 자동화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 정보 제공 등 농지은행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임대와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공사는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와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 절차도 개선해 고객이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인증은 간편하게 처리는 빠르게

공공 마이데이터는 본인 인증을 거쳐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사는 고객이 각종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이를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에 따라 고객은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고 지사를 방문해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한 번에 제출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휴대전화 인증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기준 농지은행 계약 고객의 41.6%가 60대 이상인 만큼, 고령층도 공공 마이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사를 방문한 고객은 별도의 휴대전

화 인증 없이 본인 확인 후 태블릿 서명만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이 어려운 고객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된 정보를 임대수탁 업무 자동화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 정보를 활용해 신청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 정보도 자동 생성하고 사업 대상 적격 여부도 자동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결과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걸리는 처리시간이 기존 9분 30초에서 4분대로 절반 이상 줄어 고객 대기시간은 짧아지고 담당자 업무 부담도 덜어졌다.

■ 농지연금 가입 순서도 실시간 확인…농지은행 이용 편의 지속 개선
올해 4월부터는 농지연금 가입 순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농지연금 실시간 대기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농지연

금 신청자가 농지은행 통합포털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신청 지사 등을 입력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자신의 가입 대기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공사는 디지털 업무체계를 개선해 농지은행 이용 과정의 불편을 줄여오고 있다. 지사를 방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하고, ‘농지대장·경영체등록 원스톱 등록 서비스’를 통해 관계기관을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사는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은행을 찾는 고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 불편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업무체계와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농지은행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사진=전주농협>

전주농협, 농촌 취약계층에 생필품 나눔 이웃사랑 실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7일 오전 10시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가주부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생필품 꾸러미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농업인행복센터의 지원을 받아 마련됐으며, 전주농협과 농가주부회원들은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고 정성껏 포장해 지역 내 농촌 취약계층 32가구에 전달했다.

전달 대상은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 편도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농가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필품을 꾸러미에 담아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임인규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조합원과 이웃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익산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 3곳 선정

익산시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익산시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삼기면 화초마을 △용포면 서산동마을 △성당면 회선마을 등 3곳이 조건부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여기서 발생한 발전수익을 주민 복지와 마을기금 등 공익 목적으로 배분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차 공모에서는 여산면 지역 4곳이 조건부 선정됐다. 이번 2차 공모까지 3곳이 추가되면서 익산 지역에서는 모두 7곳이 햇빛소득마을 조성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배전망 에너지

저장장치(ESS) 지원을 통한 계통연계 등 일부 보완사항을 이행하는 조건부 선정 대상이다.

시는 사업 부지와 계통연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선정마을의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3차 공모에도 적극 대응한다. 추가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기반 농촌 소득모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천권 익산시 농촌활력과장은 “선정마을의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3차 공모에도 적극 대응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가는 햇빛소득마을의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건설협회 전북도회>

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경찰청과 소통 간담회

보이스피싱 예방 대처 방안 공유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도내 건설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 신효섭 전북경찰청장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공 발주기관, 건설관련 단체 직원을 사칭한 뒤 공사발주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효섭 청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업 대상 피싱 범죄 유형과 주요 수법,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보이스피싱은 기업인들의 절박한 상황과 신뢰를 악용하는 악질 범죄”라며 “전북경찰청은 도민과 기업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범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회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처 방안을 전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현장의 각종 범죄와 안전위험을 예방하고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경찰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건설업계를 노린 지능형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최준호 기자

군산시,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르신들에 감사와 존경 전해

군산시는 7일 월명실내체육관에서 1,200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색소폰 및 아코디언 연주로 꾸며진 식전공연으로 막을 올렸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12명과 공무원 1명 등 총 13명이 군산시장 표창을 받았다.

2부 행사에서는 군산시립합창단 및 군산국악예술원의 축하공연으로 흥을 더해, 참석한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의 날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무왕과 노자공 이야기 속으로”

익산시가 백제 무왕과 노자공의 이야기를 통해 익산의 백제 역사와 문화 교류를 쉽고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익산 백제문화체험관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인 ‘백제의 왕과 인물’의 올해 마지막 수업을 오는 24~25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백제의 왕과 인물’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백제의 대표적인 왕과 역사 속 인물을 함께 살펴보는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매월 새로운 왕과 인물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10월에 진행되는 마지막 수업은 백제 무왕과 노자공을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무왕의 업적과 익산의 백제 유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노자공의 이야기를 통해 백제의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진 배경과 의미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오는 16일까지 익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리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교과서 속 역사를 넘어 백제의 왕과 인물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며 “올해 마지막 수업에서도 무왕과 노자공의 이야기를 통해 백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지역아동센터 학습발표회 아이들의 재능 한자리에

정읍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제14회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종합학습발표회’를 열고 아동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한 공연과 작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지난 6일 오후 5시30분 열린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발표회는 아이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장 로비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과 미술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여러 사람이 카드를 맞춰 그림이나 글자를 만드는 공연(카드섹션)을 비롯해 춤, 악기 연주, 합창, 응원송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이학수 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아이들이 보여준 공연은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시간의 결실”이라며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맞춤형 일자리 지원 2(題)

중장년 기술창업기업 성장 방안 모색

익산시가 중장년 기술창업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익산시는 7일 익산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직접 듣고, 입주기업 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입주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센터 운영 현황과 주요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입주기업의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나눴다.

이어 참석자들은 사업화 와 판로 개척, 투자 유치, 기술 개발, 입주공간, 창업지

원 프로그램 등 기업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도 열려 기업들이 보유한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선보였다.

참여기업들은 서로의 사업 아이템과 기술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과 판로 연계 가능성을 모색했다.

시는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에 맞춰 사업화와 투자·판로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정호 시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에 맞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성과 공유

익산시가 중증장애인들이 공공일 자리를 통해 펼쳐온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시민들과 나눈다.

익산시는 사단법인 사랑의손길새소망(이사장 황의성)과 함께 7~8일 송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중증장애인들이 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만들어 낸 한 해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제작한 문화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

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기존 일자리의 생산성이나 업무 수행 능력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권익옹호와 장애인식개선 활동 등을 직무로 구성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광미 익산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중증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통해 보여준 역량과 가능성을 시민들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우리 아이 먹거리 안심하세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철저 관리

군산시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지도·계몽과 위생점검 등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현재 학교 주변 49개 구역 내 약 35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하고 있다.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이용이 많은 학원가 밀집 지역 4개 구역 내 약 100개소를 중점 관리하며,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역의 식품 판매 환경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통해 분식점과 만방구 등 주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식품위생 지도·계몽을 시행 중이다.

빙과류, 튀김, 떡볶이 등 아이들이 즐겨 찾는 간식류의 위생 상태를 살피고, 안전한 먹거리가 판매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가한 경과 제품 사용·조리·판매 여부 △조리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위해식품 및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며, 필요한 경

우 식품 수거·검사를 지원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를 통해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주변의 식품 판매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계몽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입점업체 모집

농특산물 판로 확대 2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단풍미인쇼핑몰’ 신규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가 직접 운영하는 농특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다. 정읍에서 생산·가공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며, 설과 추석 등 주요 소비 시기에는 기획전과 할인쿠폰을 운영해 입점업체의 판매를 돕고 있다.

입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에서 생산·가공한 상품을 취급하

는 개인 또는 단체다. 신청자는 통신판매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정읍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 이들 지역 생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 정읍의 특성과 전통을 나타내는 지역특산품 등이다.

입점업체에는 상품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 온라인 판매용 상품 상세 소개 화면 제작 등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설·추석 기획전과 할인쿠폰을 활용한 판촉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온라인 판매 경험이 적은 농가와 업체의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점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유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서류·현장 심사와 단풍미인쇼핑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입점 여부를 결정한다.

이학수 시장은 “단풍미인쇼핑몰을 통해 지역 농가와 업체가 온라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판촉과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지역 농특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형 평생학습 모델, 전국적 ‘관심’

대전 중구청장 등 방문 노하우 벤치마킹

군산시가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의 우수성과 성과를 인정받으며, 평생학습 노하우를 배우려는 전국 지자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8월에는 전주시청 실무진이, 9월에는 송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및 학생 50여 명이 군산시 평생학습관을 견학한 바 있다.

이어 7일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김계선 구청장을 포함한 21명의 공무원이 군산시청을 방문해 군산시 평생교

육사업과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사업 노하우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방문단은 군산시 평생교육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 연계 사업인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의 추진 배경, 사업 시스템, 운영 현황, 주요 성과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군산시 평생학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는 시민 5명이상이 모여 가까운 장소에서 원하는 학습을 신청하면, 시에서 강사와 매니저를 파견하는 학습형 일자리 연계 평생교육 사업이다.

2018년 처음 사업을 추진한 이후 그

성과를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받아 2021년 교육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최우수상, 2026년 국제교육도시연맹(IAEC) 우수 교육도시상을 수상했다.

순수경 교육지원과장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의 이번 방문은 군산시가 ‘시민주권 도시’를 목표로 그동안 시민 중심의 평생교육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평생교육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군산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찾아가는 평생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제10대 군산시의회, 개원 100일 이벤트 22일까지 ‘슬로건 퀴즈’

군산시의회가 10대 군산시의회 개원 100일을 기념해 군산시의회의 슬로건을 알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의회 슬로건 초성 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대 군산시의회 개원 100일이 되는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와 SNS 등에 게시된 슬로건을 확인한 뒤, 네이버 폼을 통해 초성 퀴즈의 정답과 참여자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정답을 맞힌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음료 기프트콘이 증정되며, 당첨자는 오는 27일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동수 의장은 “개원 100일을 맞아 마련한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이 제10대 군산시의회의 슬로건을



<사진=군산시>

알아보고, 의정활동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앞으로도 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소방서, 가을철 산악사고 주의 당부 산악안전지킴이 집중 운영

정읍소방서가 본격적인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실족 등 산악사고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악사고 구조 건수는 661건으로, 10월(95건)과 11월(70건)에 사고가 집중돼 가을철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사고 유형은 사고부상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이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전 충분한 준비운동 △기상 상황

확인 △평소 질환이 있는 사람은 등산로 난이도에 맞는 코스와 시간 선택 △등산로 안내판과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숙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119 신고 △랜턴·상비약 등 기본 안전 장비 준비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가을철 산행은 급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한 저체온증에 주의해야 한다”라며 “일몰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오후 5시 이전 하산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노후 건물번호판 6,059개 정비 주소 이용 편의 높여

익산시는 도로명주소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후·훼손된 건물번호판 6,059개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건물번호판은 도로명주소를 표시해 건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주소정보시설이다.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간 외부에 노출된 번호판 가운데 색이 바래거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려우면 일상적인 우편물이나 택배 배송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정확한 건물 위치를 확인하는 데 불편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건물번호판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노후·훼손 정도와 번호 식별 상태 등을 확인해 교체가 필요한 번호판을 순차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주택가와 골목길 등 건물번호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 살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운 번호판을 새것으로 교체했다.

시는 앞으로도 건물번호판의 훼손과 노후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곳을 정비해 도로명주소 이용 편의를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 장학금 기탁 정읍시에 300만원 전달

전주개인택시 정읍향우회가 정읍시민 장학재단에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해 누적 기탁액이 2800만원으로 늘었다.

기탁식은 7일 정읍시청에서 진행됐다. 향우회는 2015년부터 해마다 고향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이번이 12번째 기탁이다.

정읍 출신 회원 108명으로 구성된 향우회는 장학금 후원을 비롯해 고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영철 회장은 “고향 정읍의 학생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향을 위한 나눔과 봉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읍시>

이학수 이사장은 “해마다 고향 학생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향우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정읍의 미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축제로 지역경제 활기 더한다 2(題)

순창장류축제, 읍·면 대표 먹거리 세단장



순창군은 지난 6일 쉼랜드에서 '제21회 순창장류축제 읍·면 먹거리부스 메뉴 시식회'를 열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읍·면별 대표 메뉴를 최종 점검했다.

이날 시식회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11개 읍·면 관계자와 우석대학교 전 북영커사업단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순창장류축제가 예비글로벌축제로 지정된 만큼 읍·면 먹거리부스에도 변화를 줬다. 순창을 대표하는 장류를 중심으로 11개 읍·면 특색 있는 식재료와 조리법을 접목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메뉴를 구성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흥부제 맞아 원도심 소비촉진 행사

남원시는 제34회 흥부제를 맞아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원도심 상권 소비촉진 행사 '흥부가 쏜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흥부제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연결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이용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남원시 원도심 상권활성화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당일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이다. 대상 점포는 관한루원 인근 원도심상가 110개소, 공설시장 99개소, 용남시장 59개소 등 총 268개소다. 대상 가맹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으며, 종이영수증이나 디지털·모바일 결제내역으로 구매 사실을 인증하면 된다.

행사 부스는 관한루원 서문 주차장 관광안내소 옆에



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참여자는 부스에서 구매내역을 확인받은 뒤 푼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토크렛 당첨자에게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매를 지급하며, 미당점자에게도 별도의 경품을 제공한다. 참여는 1인당 하루 1회로 제한되며 선착순으로 경품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참여점포 안내 홍보물과 SNS 등을 통해 행사 참여방법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알리고, 현장에서도 원도심 점포를 소개해 방문객의 상권 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민생·현장 중심 의정 '100일'

제10대 완주군의회(의장 성종기)가 8일 임기 시작 100일을 맞았다.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한 제10대 완주군의회는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더불어 발전하는 완주'를 기치로 내걸고 현장과 민생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100일 동안 제3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02회 임시회와 제303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3차례, 3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민생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2·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회 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는 한편,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집중했다.

정책과 의법 활동도 활발히 이어졌다. 의원들은 지난 100일간 10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와 복지, 관광,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으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변

/완주=김명곤기자

화하는 지역사회와 군민의 정책 수요를 제도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지난 100일은 '현장'과 '소통'에 무게를 뒀다. 도로·배수·교통안전 등 생활민원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농업·관광·기업 현장까지 직접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역 각계각층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제10대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성종기 의장은 "지난 100일은 군민께 드린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며 제10대 의회의 기틀을 다져온 시간이었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회가 되도록 11명의 의원 모두가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교육 진행

순창군은 민방위대원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민방위 보충 1차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집합교육 대상자인 1~2년 차 민방위대원을 비롯해 기술지원대원과 민방위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교육은 민방위대원들이 실제 비상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방위 제도의 이해 △응급처치 △화생방 대비 △화재 예방 등 총 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이론교육과 함께 실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순창=박지현 기자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병행했다. 순창군은 이번 보충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한번 숙지하고, 각종 재난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과 비상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오는 11월 마지막 보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 외국인주민 200명, 와푸축제로 화합

완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지역의 대표 축제 현장에서 하나가 됐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제14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와 화합을 다졌다. 축제에는 네팔,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15개국 출신 이주민 200명이 자리를 빛냈다.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주민들은 가족과 친구, 같은 나라 출신 동료들과 함께 축제 곳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겼다. 완주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를 맛보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음식문화를 경험하고, 축제 현장의 활기찬 분위기도 함께 만끽했다.

특히 15개국에서 온 외국인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축제장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등 국적을 넘어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귀농귀촌인·지역민 '셀프 집수리' 교육

남원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2026년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 시골주택, 내 손으로 고치기(셀프 리모델링) 과정'을 이달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농촌주택 관리에 필요한 실전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옥점·건축 도장·목공·도배·타일 등 다양한 집수리 기술을 실습 중심으로 배우며, 일상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주택 관리 역량을 키우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특히 농촌지역의 오래된 주택을 스스로 관리하고 보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동시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은 10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며, 귀농·귀촌인을 비롯한 남원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실습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만경강 물고기철길' 14일 준공식

구만경강철교 상부 보행로 조성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결실'

완주군이 과거와 현재, 예술을 잇는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인 '만경강 물고기철길'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화려한 출발을 알린다.

군은 오는 14일 오후 4시30분 삼례읍(구)만경강철교 일원에서 '만경강 물고기철길 준공식'을 연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상생협력 사업의 결실을 군민과 관광객 앞에 선보이는 자리로, 완주 관광의 대전환을 알리는 뜻깊은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민선 8기부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경강 물고기철길'은 완주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와 손을 잡고 추진해 온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완주군이 전주시에 제안하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지자체 간 경계를 넘어선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군은 (구)만경강철교 상부에 405m 길이의 보행로와 내부에 스카이워크 그리고 탁 트인 전망침터를 구축했고, 전주시는 화전동 일대에 진입도로 개설하고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정비에 이어가고 있다.

사업의 무대가 된 (구)만경강철교는 1928년 일제강점기 당시 삼례 일대의 쌀을 군산항으로 수탈해가던 아픈 역

사가 서린 공간이다.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된 이 다리는 2011년 운행이 중단된 이후 방치됐으나, 2016년 완주군이 폐철거를 활용한 '비비정예술열차'를 선보여 문화관광 명소로 변모했다. 완주 9경 중 하나인 비비정 그리고 인근 삼례도성과 이어진 이곳은 이번 물고기철길 준공으로 새로운 명소로 거듭났다. 방문객들은 새롭게 조성된 철길 보행로를 걸으며 만경강의 자연생태 절경을 조망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에 준공된 만경강 물고기철길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 고추장, 비만성 신장 손상 완화 가능성 확인

세포 지방 축적·염증 억제 확인 고지방성 생쥐 KIM-1수치 감소

순창 고추장이 비만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군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전북대학교 한안나 교수 연구팀이 공동연구를 통해 고추장의 비만 관련 신장 손상 완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Food Science & Nutrition'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원하는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의 일환으로 진

행됐다. 연구팀은 사람 유래 신장 세포를 이용한 실험과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을 통해 고추장의 영향을 분석했다.

세포실험에서는 고추장 추출물이 신장 세포의 지방 축적과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쥐를 대상으로 13주간 지방 함량이 높은 먹이를 제공한 동물실험에서도 고추장을 함께 섭취한 집단은 지방 함량이 높은 먹이만 섭취한 집단보다 신장 손상 지표인 'KIM-1' 수준이 약 절반으로 낮아졌다.

신장 조직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지방 함량이 높은 먹이를 섭취하면서 나타난 신장 내부 구조의 손상과 변형이

고추장 섭취군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추장과 동일한 염분을 소금으로 섭취한 집단보다 고추장 섭취군의 신장 손상 지표가 낮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고추장의 기능성을 평가할 때 염분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성분과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내 미생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고추장 섭취군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졌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장 손상과 염증 지표 개선과 연관성을 보였다. 다만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화장품 '춘향미인' 흥부제 팝업 운영

지역5개 기업·15종 제품 선보이 11일 춘향엠버서더 현장 홍보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제34회 흥부제가 열리는 9일부터 11일까지 남원 경의상가 7동에서 화장품 팝업부스 '춘향미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흥부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축제와 연계해 지역의 화장품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역 화

장품 기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참여기업에는 효과적인 홍보와 판로 확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팝업부스에는 관내 5개 화장품 기업(아쿠밍 주식회사, ㈜원스킨화장품, 제너럴바이오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그라운드, 한미화장품)이 참여해 총 15종의 제품을 선보인다. 남원 청정지리산권의 우수한 화장품 원료를 활용한 제품도 함께 만날 수 있으며 다

양한 할인 혜택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행사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에는 춘향 엠버서더가 팝업부스를 방문해 현장 홍보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팝업부스 운영과 관련해 "우리 남원의 우수한 자원과 지역 기업들이 손잡고 만든 '춘향미인'이 흥부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청소년들, 삼성에서 진로·학습 코칭 지원받는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삼성드림클래스'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삼성드림클래스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과 학습, 미래역량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진로·학습 지원과 다양한 미래역량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일환으로 지난달에는 삼성 임직원이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 참여 청소년들은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진로 탐색 및 학습 코칭을 비롯해 문해력 △코딩 △글로벌 소통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초 소양 프로그램과 △학년별 맞춤형 교육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라이키 프로젝트 '마음보호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을 구체화해 한 걸음씩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보건소, 가을철 야외활동 진드기 감염병 예방 당부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가을철 농작업과 단풍놀이, 등산 등 야외 활동이 급증함에 따라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은 10월 이내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과 함께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검은 가시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5~14일 이내 잠복기를 거쳐 고열, 구토, 설사 등 증상과 함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 예방법이다. 야외 활동 시 긴 옷 등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진드기 기피제 사용,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기 않고 지정된 길만 이용, 귀가 후에는 옷을 즉시 털고 세탁 등 예방수칙 준수를 권장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을철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청정 자연 달린 만경강배 트레일런 대회 '열기'

전국 산악 마라토너들이 완주의 청정 자연 속을 힘차게 질주한 '제2회 완주 만경강배 트레일런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와일드&로컬푸드 축제기간인 3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호인들이 참가해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끽했다. 아울러 지역 대표 축제와 어우러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대회는 고산자연휴양림을 출발해 안수산과 위봉산성을 경유해 돌아오는 34km, 20km, 7km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펼쳐졌다.

치열한 레이스 끝에 34km 남자부에서는 서울에서 참가한 이 모 씨가 4시간 14분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34km 여자부에서는 경기 부천 출신 정 모 씨가 5시간 20분 만에 결승선을 통과하며 극한의 도전을 당당히 완주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출발·도착 지점을 제14회 완주 와일드&로컬푸드축제장과 연계해 체육과 축제의 상생 효과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완주한 경품과 식대를 모두 축제 상품권으로 제공해 축제장 내 소비를 유도하면서 상인들의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탰고, 참가자들에게는 완주의 맛과 멋을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완주=김명곤기자



OCI 익산공장 작은 정성 모아 큰 사랑으로

익산시는 7일 OCI 익산공장(공장장 이수형) 직원들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생필품 꾸러미 20상자(2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은 OCI 익산공장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004원씩 자발적으로 모금하는 '사랑의 1004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꾸러미는 식료품과 일상생활용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으로 구성됐다.

이날 OCI 익산공장 직원들은 삼성동과 팔봉동의 취약계층 10가구를 직접 찾아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다른 10가구는 읍면동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이수형 OCI 익산공장장은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참여한 '사랑의 1004 운동' 성금으로 지역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학산로 130 어시장'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정읍의 음식점 '학산로 130 어시장'(대표 양상범)이 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양상범 대표는 이날 정읍시청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업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읍시 지정기탁금으로 전달되며, 지역 내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양상범 대표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아이빛유치원, 폴리마켓 수익금 기부

작은 손길 모아 따뜻한 나눔

익산 아이빛유치원 아이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할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졌다.

익산시 신동은 아이빛유치원(원장 성하숙)이 원아들과 함께 폴리마켓을 열어 마련한 수익금 120만 8,100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폴리마켓은 아이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깨끗한 물건을 가져와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은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으로 다시 쓰이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원순환의 의미를 배웠다.

장터에서 모인 수익금은 총 120만 8,100원으로, 전액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됐다. 아이들은 직접 마련한 수익금을 이웃과 나누며 나눔의 기쁨도 함께 배웠다.

성하숙 아이빛유치원장은 "아이들이 폴리마켓에 참여하면서 물건을 나눠 쓰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눔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신동은 아이빛유치원이 원아들과 함께 폴리마켓을 열어 마련한 수익금 120만 8,100원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익산시>

부안 부안읍이장단協,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회원 뜻 모아 500만원 전달

부안군 부안읍이장단협의회(회장 김용화)가 부안 해돋이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제6회 웃음으로 채우는 부안읍민의 날' 행사에서 부안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격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용화 부안읍이장단협의회장은 읍민의 날을 축하하는 마음과 함께 협의회 회원들

의 뜻을 모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을 부안군에 전달했다.

평소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하며 지역 발전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온 이장단협의회는 이번 대규모 기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몸소 실천했으며, 특히 행사에 참석한 많은 읍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진안 동향면 지사협, 짜장면 나눔 행사

진안군 동향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강희, 강이순) 이하 지사협)는 7일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짜장면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을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이웃 간 정을 나누고 지역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이날 행사에는 각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함께 짜장면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사협 위원들은 행사 준비와 음식 나눔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강이순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주 소양면 송시향 씨, 조형소나무 330주 기증

완주군이 소양면 신교리 응암마을 주민 송시향 씨로부터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공공시설 환경 개선에 써 달라며 조형 소나무 330그루를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조형 소나무는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으로, 기증자가 오랜 기간 정성으로 가꾸어 온 수목이다. 수형과 생육 상태가 뛰어나 조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기증자의 뜻을 살려 해당

소나무를 관내 공공사업장 주변에 심고, 주민들이 일상에서 푸른 경관을 누리도록 공공녹지 조성에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다.

송시향 씨는 "오랜 시간 애정을 쏟아 키운 소나무가 많은 이웃이 오가는 공공시설에 뿌리내려 완주의 경관을 가꾸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주)케이워터기술 김제시에 성금 150만원 기탁

김제시는 7일 (주)케이워터기술 부안권사무소(소장 오성현)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주)케이워터기술 오성현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 박미에 본부장 등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를 통해 2026년 초록우산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김제시와 함께돌봄'에 활용될 예정이다.

(주)케이워터기술은 수자원 관련 시설물 및 설비의 점검·정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케이워터기술에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진안읍 농민회 홍삼축제 수익금 100만원 기부

진안군 진안읍 농민회(회장 정성규)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나눴다.

진안읍 농민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린 '진안 홍삼축제'기간 동안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중 100만원을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진안읍 농민회 회원들이 축제 기간 동안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따내려 얻은 수익금의 일부로 마련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성금은 진안읍 지사협을 통해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어르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정성규 회장은 "진안홍삼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및 군민들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함께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고 싶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작은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도심은 가깝게, 자연은 푸르게"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이 만드는 깨끗한 내일

JBT 전북타임스캠페인

〈一事一言〉



민선 9기 100일 ‘체감성장’ 화려한 수치 넘어 도민 호주머니 채워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체감성장’과 ‘도민주권’ 내건 민선 9기 100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았다. 도정은 지난 100일간 ‘체감성장’과 ‘도민주권’을 양 대 축으로 내걸고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장기 표류 과제였던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확정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케미컬 특화단지 거점유치, 기업 성장사다리 6단계 재편, 1,8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는 굵직한 현안들이 대외적 성과로 내걸렸다. 도청 광장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소통의 방식을 바꾼 정부적 노력 역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적 수치와 성과 발표 뒤편에서 도민들이 느끼는 냉정한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 침체 속에 장사가 안되어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역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난다. 수조 원대의 기업 투자 유치 협약(MOU)과 화려한 국제 사업 공모 당선 소식도 연일 보도되지만, 정작 “내 삶과 살림살이는 무엇이 나아졌는가”라는 질문에 섣불리 답하지 못하는 도민이 대다수다.

민선 9기가 내건 ‘체감성장’이라는 화두가 거대한 담론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토목과 숫자의 성과를 넘어 도민의 삶으로 직접 파고드는 실질적 체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다. 체감성장을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MOU 및 국제 사업의 실질적 집행을 제고’다. 지난 도정에서 수많은 약속이 반복되어 온 기업 유치 MOU의 상당수가 실행되지 못한 채 어물쩍 뒤흔던 경험을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거창한 공모·MOU 신화 벗어나 현장으로 들어가는 진짜 성과 내야

수조 원의 투자 금액을 자랑하는 발표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땅을 파고 공장을 세워 도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제 집행력’이다. 1,8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펀드와 6단계 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역시 도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자금줄로 작용해야 한다. 행정의 눈길이 대기업 유치나 대형 국제 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일자리의 버팀목인 향토 중소기업의 체질을 바꾸는데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다.

두 번째 과제는 ‘도내 14개 시·군 간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해소’다.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과 자본이 집약되는 동안, 남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과 소멸 위기 시·군은 철저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100일 성과 중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확정이 갖는 의미가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민선 9기의 3대 미래 성장축인 그린수소, 첨단로봇, 농생명바이오의 결실이 특정 도시 지역에만 쏠리지 않고,

14개 시·군 전체의 특화 산업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골고루 스며들 수 있는 온기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

세 번째 과제는 ‘관계 행정 탈피와 도민주권의 실질적 완성’이다. 도청 광장 개방이나 회의 생중계 같은 형식적 소통을 넘어, 자광 애대 한방적 부지 개발이나 대형 엑스포 예산 집행 문제 등 도민의 이해관계와 현실이 직결된 민감한 현안 앞에서 얼마나 투명하고 엄정한 절차를 밟느냐가 도민주권의 진정한 시약이다. 사업자의 말이나 행정의 편의에 끌려다니지 않고, 철저한 법과 원칙, 그리고 객관적 이행 능력 검증은 거치는 단호한 행정력을 보여줄 때 도민의 신뢰가 확보된다.

100일은 기를 마련하는 탐색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실질적인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다. ‘체감성장’은 도청 브리핑룸의 현수막에 적힌 문구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도민 개개인의 호주머니가 두터워지고 지역 상권에 활기가 돌 때 비로소 완성된다. 전북도정은 100일의 자화자찬을 거두고, 민생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도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치밀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ㅣ 독자투고 ㅣ

어설픈 말투는 옛말, 누구나 표적된다



“아빠,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급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당황하지 않을 부모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익숙한 가족의 목소리나 화면 속 얼굴조차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이 급격히 대중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딥보이스와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극도로 정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피싱이 어색한 말투나 서툰 문장으로 구성됐다면, 최신 AI 피싱은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목소리와 어조를 완

벽하게 복제한다. 더욱이 딥페이크 기술로 공공기관 직원의 얼굴을 조작해 신분을 증명하거나, 가족과 통화해 확인시켜 주겠다고 범죄자가 직접 복제된 목소리로 통화를 연출하는 신종 ‘가짜 확인’ 수법까지 등장했다.

또한 민생지원금이나 교육자 지원금을 방자한 미끼 문자, 택배 배송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심코 문자 속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는 순간 원격 제어 악성 앱이 설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의심하기-전화 끊기-직접 확인하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둘째, 가족만

알 수 있는 비밀 암호를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셋째,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기술적 허점을 노리는 것을 넘어, 가족을 향한 사랑과 불안감을 교묘히 악용하는 잔인한 범죄다. 하지만 이상하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는 단호한 태도와 온 가족의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오늘 저녁, 부모님과 자녀에게 안부 전화 한 통을 걸어 가족 비밀 암호를 정하고 예방 수칙을 나누어 보기를 권한다. 그 작은 대화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과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이다.

김제경찰서 금산파출소 경장 이수빈

전주상의·전북은행, ‘상생’ 구호 넘어 실질 지원책 내와야

전주상공회의소와 전북은행이 지역기업의 금융애로 해소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경제계를 대표하는 상의와 지역 대표 금융기관이 기업 지원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전주상의는 지난 6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10월 회장단회의를 열고 지역 상공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지역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융지원과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내용에는 대출금리 우대나 특별자금 공급, 보증기관 연계,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추상적이지 않다.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속에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등 경영비용 부담은 여전하다. 이럴 때 지역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

하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적기에 돈이 돌도록 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

전주상의 역시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회원 기업의 자금 수요와 금융애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전북은행과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행도 ‘지역기업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우대금리와 특별자금 규모, 보증기관 연계 방안 등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행과 지역 상공회의소의 존재 이유는 결국 지역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로 증명된다. 이번 만남이 정례적인 회의와 협력 다짐으로 끝나는 안 된다. 양 기관은 기업들이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된다.

▲오늘의시

별 / 이 외 수

내 영혼이 죽은 채로 술병 속에
썩고 있을 때
잠들어 이대로 죽고 싶다

울고 있을 때
그대 무심히 초겨울 바람 속을 걸어와
별이 되었다

오늘은 서울에 찾아와 하늘을 보니
하늘에는 자욱한 문명의 먼지

내 별이 교신하는 소리 들리지 않고
나는 다만 마음에
점 하나만 찍어 두노니

어느 날 하늘 맑은 땅이 있어
문득 하늘을 보면
그 점도 별이 되어 빛날 것이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8일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8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군산의 가을 ‘짬뽕’의 새로운 맛에 빠지다

10월, 군산이 일컫는 짬뽕의 맛과 향으로 물든다. 군산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백년광장 일원에서 ‘2026 군산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군산 짬뽕은 오랜 시간 지역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군산의 대표 음식이다. 1970년대 초 화교들이 깊게 우러낸 육수에 군산의 신선한 해산물과 얼큰한 고춧가루가 어우러지면서 오늘날 군산을 대표하는 짬뽕 문화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축제는 이러한 군산 짬뽕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행사를 넘어, 다양한 미식과 공연·체험을 즐기고 군산의 관광 명소까지 둘러보는 ‘체류형 미식관광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음식점과 관광지, 전통시장과 상권으로 이어지도록 해 축제의 활력을 군산 전역의 관광과 소비로 확산시키는 것도 올해 축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다.

(편집자 주)



‘2026 군산짬뽕페스티벌’ 개최 스타셰프(미카엘·데이비드 리·이미영 셰프) 참여

■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미식

올해 축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콘텐츠 중 하나는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미식 경험이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로 잘 알려진 미카엘 셰프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통해 이름을 알린 데이비드 리 셰프, 이미영 셰프가 군산을 찾는다.

세명의 스타 셰프는 각자의 개성과 요리 철학을 담은 특별 메뉴를 선보이며,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미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깊고 진한 군산 짬뽕의 맛에 스타 셰프만의 개성 있는 메뉴가 더해져 새로운 축제의 재미와 풍성함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조금씩, 다양하게 - ‘0.5인분 미식탐방’

군산짬뽕페스티벌을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는 ‘0.5인분 미식탐방’이다.

전통 중식 부스에서는 짬뽕과 짜장면을 0.5인분으로 판매해, 방문객들이 양에 대한 부담 없이 여러 업소의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했다.

진하고 깊은 고기짬뽕부터 시원하고 칼칼한 해물짬뽕까지 각기 다른 개성을 비교해 보거나 일행과 함께 메뉴를 나눠 먹으며, 나만의 ‘인생 군산 짬뽕’을 찾아보는 색다른 미식 경험을 제공한다.

■ 낮부터 밤까지 - 먹고 즐기며 머무는 축제
올해 축제는 먹거리뿐 아니라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체류형 콘텐츠에도 힘을 실었다.

낮에는 다양한 미식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해가 지면 음식과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축제장은 또 다른 분위기로 변신한다. 야외 다이닝 프로그램인 ‘짬뽕레스토랑’에서는 선선한 가을밤의 정취 속에서 음식과 라이브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간대별로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배치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친구와 연인,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단순히 짬뽕 한 그릇을 맛보고 돌아가는 축제를 넘어 먹고, 즐기고, 머무르면서 군산의 가을을 함께 경험하는 축제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 짬뽕을 맛보고, 군산을 여행하다

축제의 즐거움은 백년광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축제장에서는 군산의 중식당과 짬뽕특화거리 등 지역의 다양한 미식자원을 소개해 관광객들이 축제를 계기로 군산 곳곳의 맛집과 명소를 찾

아볼 수 있도록 한다.

군산은 짬뽕뿐 아니라 근대문화유산과 시간여행마을, 고군산군도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다. 이는 관광자원과 축제를 자연스럽게 연계해 짬뽕을 맛보기 위해 시작한 방문이 군산 곳곳을 둘러보는 여행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즐거움에 안전을 더하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먹거리 축제인 만큼 안전과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행사 전 가스·전기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기간에도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먹거리 부스와 취식공간에 대한 위생관리와

행사장 환경정비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축제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경찰·소방·보건소·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인파 밀집과 응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군산 짬뽕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특별한 미식, 0.5인분 미식탐방,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군산의 맛과 멋을 즐기며 특별한 가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제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Heungbu Festival

2026.10.9(금)~10.11(일)

광한루원 및 요천변(월궁광장) 일원

주최 남원시 주관 흥부제전위원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